

1.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저지 투쟁 과정

2002. 3. 한미간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에 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협정 체결

2003. 5.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 미2사단 재배치에 관한 원칙 합의

2003. 7.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을 대책위원회 발족

2004. 9. 1. 우리땅지키기 팽성주민 촛불행사 1일째

2004. 10. 용산기지가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개정안 합의

2005. 2. 주민들, 지장물 조사 거부투쟁 진행.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2005. 7.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1차 평화대행진

2005.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택 주민들 땅 강제 토지수용 결정

2006. 3. 국방부, 1차 농지 파괴 시도

2006. 4. 국방부, 2차 농지 파괴 시도

2006. 5. 4. 국방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농지 철조망 설치, 군부대 주둔

2006. 9.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4차 평화대행진

2006. 9. 13. 국방부, 주택 일부 강제철거 진행

2006. 11. 8. 추가 철조망 설치

2006. 11. 9. 우리땅지키기 팽성주민 촛불행사 800일째

2. 주한미군 재편에 따른 기지의 재배치

LPP 협상, FOTA회의, SPI회의 등을 통해 2006년 1월 20일 한미 외무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고 최근 미8군 사령부의 해체, 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해체 등 주한미군의 재편과 성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2004년 합의된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이전 등 미군기지 재배치는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기지의 이전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지의 건설이라고 해석된다.

대북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불박이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서 분쟁지역에 자유로이 투입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2004년 8월 이라크 전쟁에 미2사단 2여단(2nd BCT) 3,600여명의 주한미군이 파병되었고, 상시적으로 주한미군 소속 헌병대, 정보부대, 항공부대 군인들이 순환 파병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성격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군의 전투 훈련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동반한다. 해외 미군들이 언제든지 한국에서 훈련하고 다시 해외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북부 지역에 건설될 연합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2003년 8월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Fort Lewis)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 최

초의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가 첫 해외 훈련으로 한국 포천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이라크로 파견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6년 1월 한미 외무부 장관간 공동성명으로 공식 발표된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반도 외 타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의 개입 논란을 낳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주한미군은 공짜로 토지를 제공받으며, 한국정부에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할 경우 한국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장관간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권리 침해를 따져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미군기지 재배치의 목적과 확장되는 기지의 사용용도에 대한 합의없이 토지와 비용을 제공하기로 먼저 합의한 것은 한국 협상자들의 협상 실패이며, 한국측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는 협상의 체결로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3. 4년 반 투쟁과정에서 주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땅에 물든 삶이다.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주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싸워온지 벌써 4년 반이 흘렀다. 미군기지 확장사업 과정에서 정부는 자본과 경찰, 용역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공동체를 산산이 짓부수었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정부의 온갖 회유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800일이 넘도록 촛불을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저항은 근본적으로 삶을 지키려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맨손으로 개간한 절대농지와 미군에게 쫓겨나면서도 다시 만들어낸 마을공동체에 있다.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때문에 두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K-6 육군기지 활주로 끝자락 철조망을 밖으로 형성된 대추리 마을은 1952년 미군비행장 때문에 쫓겨나기 전에는 현재 활주로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꽤 큰 마을이었다. 미군들은 일본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을 접수하고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집을 부수고 주민들을 쫓아냈다. 보상이라고 받은 천막과 나무판, 보리쌀 한가마에 의지해 활주로 끝자락에 다시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공동의 작업으로 한 집을 짓고 나면 다른 집을 짓는 방식으로 마을을 꾸려 내었고 농지가 모자라 인근 갯벌을 개간하여 농지를 만들어갔다.

도두리 또한 살 곳과 농사지을 땅을 찾아 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땅이다.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살며 개간한 땅들과 아산만 방조제 건설 후 소금기 가득했던 농지를 지금과 같은 절대 농지로 일구어온 것이다. 바다를 메꿔 맨손으로 일군 땅이니 내 인생을 고스란히 바친 곳이고 보릿고개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달리던 가족들의 생명이 깃든 곳이다.

작년 12월 강제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전된 후 불법 영농행위를 금지한다는 정

부의 발표에 농민들은 분노했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부의 정책보다 농사를 '행위'로 폄하하는 정부의 자세에 분노했다. 봄에 씨를 뿌린 농지 위로 5월 4일 철조망이 쳐진 후 파랗게 올라오는 벼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농민들은 한숨이 일상이 되었고, 노동이 일상이었던 이들에게 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다. 그나마 철조망이 쳐지지 않은 10만평 가량의 귀퉁이 논에서 벼를 수확하는 날에는 온 마을에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정부는 그 10만평조차 지난 11월 8일 추가로 철조망을 쳐 남은 희망의 끈을 모질게 잘라버렸다. 농사짓는 사람은 논두렁을 베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며, 자신도 부모와 함께 일군이 땅에서 평생 농사짓다 그렇게 세상을 뜨고 싶다는 한 농민의 소박한 바람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군대를 위한 기지 건설에 맞선 싸움을 하게 만든 이유일 것이다.

3. 한미동맹을 앞세운 일방적 폭력적인 미군기지 확장사업

1) 외교 안보 사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받지 않는다.

한미간 미군기지재배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 변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 한국의 비용부담, 환경정화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적인 토론도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체결된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위해 검토를 받았고 국회는 비용과 전략적 유연성, 추가 감축 등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았지만 충분한 토론과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교 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40여일만에 비준하였다.

외교 안보사안, 특히 미군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이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국회 비준 당시 협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지적된 문제점들을 검토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은 2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종합시설계획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협정만 통과시켜 놓고 차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2)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미군기지 확장사업

한미간 외교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군기지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재편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는 배제되었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들의 참여 또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미군기지 재배치 결과 평택지역에는 서탄 K-55 공군기지(OSAN AIR BASE) 주변 68만평과 팽성 K-6 육군기지(CAMP HUMPLEYS) 주변 293만평 등 360만평 가량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미군에게 주기로 협상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들이 관계 부처 사람들을 만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무책임한 답변이나 외면으로 무시되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미협의 전에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미간 협의완료 - 국회비준 - 주민협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이 진행중이던 2003년 11월 국방부 장관은 당시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미군기지 이전대책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주민대책위가 제안한 면담은 거부하였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모든 단체와 면담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답변이었다. 이것은 외교안보 사안에 따른 협의의 배제가 아니라 정부가 선택적으로 협의 대상자를 골랐다는 것이다.

한미간 정부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후에야 정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보상 이야기밖에 없다.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국방부가 대화를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평택범대위,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한 결과 대화를 통해서 평택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5월 1일 국방부는 보상문제 외에는 대화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서는 5월 4일 새벽 4시 4시 군인과 경찰, 용역을 동원한 “여명의 황새울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3) 차별 보상과 공권력에 의한 무차별 탄압

주민들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차별 보상과 무차별 공권력이었다.

정부는 토지매수에 협소한 주민들과, 끝까지 거부하여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주민들간 보상내용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에 응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을 보상을 적게 주는 정책으로 결국 주민들과의 합의나 의사수렴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평택 시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평택특별법을 만들어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대학 이전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보조금 지급 등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저항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법과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차별 탄압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권력을 공폭력이라 부른다.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자 국방부는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토지를 빼앗았고 2006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지를 파괴하려고 하였다. 평택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방부의 농지파괴를 막자 결국 국방부는 5월 4일 군인과 경찰, 용역직원,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대추분교를 파괴하고 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국가폭력으로 이날 524명을 연행되었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철조망을 세우고 군인들을 배치한 후 농지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고는 경찰을 배치하여 검문까지 진행하고 있다. 마을에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진 이중 삼중의 검문소에서 경찰들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에 대해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검문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였다.

4. 향후 계획

1) 김지태 위원장 석방 운동

2006년 평택 미군기지확장을 막는 과정에 829명이 연행되었고 4억원 가량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주민대표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이 감옥에 갇혀있다.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김지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과 평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다.

12월 초 인권주간에 맞춰 양심수 김지태 위원장 석방 운동을 전개

12월 9일 인권콘서트에서 대추리 투쟁을 알리고 김지태 위원장 구속의 부당성 선전

청와대와 법원에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엽서보내기.

2) 향새울 살림단, 주민들과의 자매결연 사업

5월 4일 철조망이 세워진 후 농사를 짓지 못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마을 방문과 촛불행사 참가로 주민들과 연대를 지속하기 위한 사업.

향새울 살림단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입

주민들 겨울 난방비와 자녀 등록금 마련을 위한 재정후원, 물품보내기 운동

주민촛불행사 참가 등.

3)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반전평화 운동

한미 FTA 반대투쟁, 이라크 전쟁 중단, 파병군인 철군 투쟁,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 실현 투쟁 등과 연대하여 전개.

12월 초 김지태 위원장 석방,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전쟁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각계인사 평화 선언 진행

12월 17일 송년문화제

2007년 초 5차 평화대행진